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4개 읍·면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2021년도 읍면 주요 업무보고 및 특색 사업 추진 계획 청취 등을 위해 지난 12일 부안읍과 행안·동진·계화면을 차례로 방문해 읍면 현황청취를 진행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날 오전 부안읍과 행안면을 방문해 주요 업무에 대해 청취하고 부안읍의 특색사업인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매력부안읍 만들기, 부안읍 물품공유 서비스, 코로나 블루 극복 홀몸어르신 반려식을 비대면 키트 지원 등 행안면의 특색사업인 매력 부안 건의함 운영, 차와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 등 각 읍면 신규사업을 공유했다.

이어 동진면 현장민원 골든 타임제, 동진감자 스마트 농(農)·업(UP) 법인화 플랫폼 구축, 독거 어르신 반려정원 체험사업과 계화면 계화버섯질 LAND 간척지·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이동식하우스 감자재배 확대 사업 등 신규 특색사업과 주요 현황을 청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비대면 구강지킴이 딜리버리 서비스 실시

부안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유아 및 아동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구강지킴이 딜리버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구강지킴이 딜리버리 서비스는 부안군 관내 병설 유치원 중 신청기관 25개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한 후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자료가 게재될 네이비 밴드 가입과 비대면 구강지킴이 딜리버리 박스(교육물품 및 홍보물 등)를 2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딜리버리 박스는 잇솔질 교습을 위한 차아모형, 차아세균체 크기(덴티노트), 치면착색제 도포를 통한 프라그 체크, 차아교육을 돕는 색칠공부 홍보물 등 10여 가지의 교육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복분자발효식초 우수성 입증

고창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복분자 식초 항산화 활성 비교 결과 일반 식초 대비, 3배의 폴리페놀·1.6배의 플라보노이드 등 함량 높아

‘고창복분자발효식초’가 일반 식초와 비교해 노화방지나 면역력 등에 이로운 항산화물질 함유량이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고창군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시판식초와 고창 복분자 식초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창 복분자 식초에는 약 3배의 폴리페놀, 약 1.6배의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분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복분자가 적포도보다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약 4배 정도 더 많아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군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분자 식초 우수성에 대한 차별화된 과학적 검증을 위한 R&D 사업을 통해 우수성과



고창복분자 발사믹 식초

가능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창 고유의 초산균주를 찾아내 복분자 식초 제품개발과 기능성 건강

식품, 코스메틱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식초품질기준 마련, 한국형 복분자 발사믹식초 제조공정 표준화 등을 통해 고창군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형 발사믹 식초의 산업화에도 힘쓴다.

한국형 복분자 발사믹 식초와 식초 글레이즈(소스류)를 개발·판매해 인지도도를 높이고 있다.

또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식초 탄산음료도 출시돼 가능성이 중요시되는 식품시장의 변화에 식초산업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고창농업기술센터 식초산업팀 이형진 팀장은 “이맘때쯤이면 노곤해지는 허, 답답해진 입맛 정도는 건강하면서도 새콤한 신맛을 보강해 줄 고창의 전통 식초를 만들어 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며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어우러진 식초문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1분기 정기회가 지난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조해심여성분과위원장은 의장상, 김태룡 회장 황현석 위원장, 오승욱 위원은 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민주평통 정읍시협 정기회의

정읍시, 대통령 표창 전달식 및 남북합의 이행 방안 토론회 중선선언 선언 및 지지 표명 대국민 서명운동 펼쳐기로

2021년1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2021년 1분기 정기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표창자, 조해심 여성분과 위원장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김태룡 민주평통정읍시협의회장이 의장상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민주평통정읍시협의회 김태룡 회장은 황현석 국민소통위원장, 오승욱 위원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표창패를 대신 전달했으며, 이정순위원에게는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표창패, 서항경위원에게는 민주평통 홍종식부의장 표창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번 대통령 표창 및 시상식 등은 지난해 연말 경, 전북지역회의 때 전달하기로 예정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개최되지 못하고 이날 전달하게 된 것. 이어 백정록간사의 성원보고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 방안 주제 아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비대면 영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

이날 서항경위원은 “생활 속 종전선언 지지 및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읍시의회 의장인 조상중 위원은 “평화통일로 가는 프로세스 가동은 대통령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힘을 모으자며 위원들부터 한마음을 강조하면서 민간인들이 우선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경색국면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참석위원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동을 위한 우선 방안, 2021년 민주평통 중점 추진활동과 더불어 정읍시협의회가 역점을 두고 실천해야 할 과제는? 그리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나누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분과위원회별로 중선선언 선언 및 지지를 표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한편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2021년 상반기 제1권역(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자문위원연수가 정읍시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혁명정신 계승·발전 공헌 단체·개인, 4월 9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제54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문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지역 내 사회단체장, 학교장, 실·과·소장, 사학자, 연구자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수상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2011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수상했으며, 시는 매년 한 단체 또는 개인을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후보자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4월 9

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063-539-5432)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제54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개최되는 5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지 세 번째된 해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수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2021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본 부과

정읍시가 2021년도 정기본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대부료는 총 542건으로 부과금액은 8,621여만원(시유재산 507건 8,466만원, 도유재산 35건 154만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경작용 0.01% 주거용 0.02%, 기타 0.05%)을 적용해 부과하

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4월 12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사용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대상과 적용 기

간 등 세부 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사용 목적이 기타용인 경우, 부과 비율을 0.05에서 0.03으로 적용해 부과하며 241건, 감면액은 약 3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쉼터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치매안심센터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기억 튼튼 청춘 놀이터, 월~목 오후 시간대)를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낮 시간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부담을 덜고 환자의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치매 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용 정원보다 인원을 축소해 소규모로 구성해 운영된다.

아외 활동이 가능한 고창군 성내면 ‘행복한 치유 농장’과 연계해 동·식물을 매개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으로 우울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